



헤드샷을 피해라

한국태권도, 이것만은 조심

리우부터 전자 헤드기어 도입
양발 센서 7개서 11개로 늘어
상대 발에 스치기만 해도 실점

한국태권도가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적응’이라는 익숙한 과제와 맞닥뜨렸다. 4년 전 런던올림픽과 견줘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전자 헤드기어다. 전자 헤드기어는 2014팬체스터그랑프리시리즈에서 처음 도입됐고, 올림픽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태권도대표팀은 런던올림픽 때 몸통

전자호구 적용에 무척 애를 먹었다. 금메달과 은메달 1개씩만을 따내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에는 몸통에만 전자호구 시스템이 적용됐고, 머리 공격에 대한 득점 여부는 심판들이 직접 판단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에는 전자 헤드기어를 도입하면서 비디오 판독으로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으리란 기대가 크다.

머리공격뿐만 아니라 몸통공격의 득점제도에 변화가 있다. 런던올림픽에서 득점제도는 몸통 1점, 몸통 회전공격 2점, 머리 3점, 머리 회전공격 4점이었다. 그러나 리우올림픽에선 몸통 회

전공격에 3점을 부여한다. 선수들이 한층 역동적인 기술을 구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몸통 돌려차기 한방에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데, 지난해 멕시코시티그랑프리 남자 58kg급 결승이 좋은 예다. 당시 김태훈(22·동아대)은 파르잔 아슈르자데 팔라(이란)를 상대로 3라운드 종료 5초 전 몸통 돌려차기에 성공하며 3-2로 역전승했다. 회전이 가미된 기술의 채점은 부심이 하며, 이에 대한 비디오판독 요청도 가능하다. 또 양발에 부착된 센서가 종전 7개에서 11개로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가운데 발가락 뒷부분, 엄지 옆, 발목 안쪽과 뒤쪽에 센서를 추가했다.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블라인드 킥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적극적으로 공격하면 그만큼 득점확률이 높아진다. 헤드기어는 득점 강도 기준이 최소 수준으로 적용된다. 상대의 발이 헤드기어에 스치기만 해도 실점할 수 있다. 선수들은 “최대한 머리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과제다”고 입을 모았다.

런던올림픽 남자 58kg급 은메달리스트 이대훈(24·한국가스공사)은 “전자호구가 도입됐다고 경기력이 떨어진 것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적응에 실패한 것이 다”며 “과거처럼 빠른 경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어진 환경에 맞게 해야 한다. 어떤 시스템이 적용되든 내가 할 것만 잘하면 절대 지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베이징 때처럼…날아라 태권V

정식종목 채택 후 금메달만 10개
런던 때 금1·은1 부진 만회 기대

‘한민족 고유의 무술’ 태권도가 올림픽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때는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권도는 발상지인 한국에서 열린 1988서울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선을 보인 이후 2000시드니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종주국답게 지난 4차례의 올

림픽에서 가장 많은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 10개에 은메달과 동메달을 2개씩 따낸 한국은 중국, 미국, 대만(이상 8개)을 6개차로 따돌린 상태다. 종주국이라는 이유로 출전선수 규모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뚫고 이룬 쾌거이기도 하다.

첫 금맥도 한국의 몫이었다. 정재은이 올림픽 태권도 첫 금메달이 걸려있던 시드니대회 여자 57kg급에서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김경훈과 이선희가 각각 남자 80kg 이상급과 여자 67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태권도 역대 올림픽 메달 현황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 김경훈 (남 +80kg) ● 정재은 (여 -57kg)	● 문대성 (남 +80kg) ● 장지원 (여 -57kg) ● 이선희 (여 -67kg) ● 신준식 (남 -69kg)	● 손태진 (남 -68kg) ● 차동민 (남 +80kg) ● 임수정 (여 -57kg) ● 황경선 (여 -67kg)	● 황경선 (여 -67kg) ● 이대훈 (남 -58kg)
※합계: ● 금 10개 ● 은 2개 ● 동 2개			

2004년 아테네대회에선 문대성의 돌려차기 한방이 주효했다. 문대성은 남자 80kg 이상급 결승에서 니콜라이 알렉산드라(그리스)를 상대로 금빛

뒤돌려차기를 날렸다. 장지원도 이 대회 여자 57kg급에서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최근 2번의 올림픽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2008년 베이징대회에서 금메달을 무려 4개나 챙기며 정점을 찍었던 한국태권도는 2012년 런던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로 체면을 구겼다. 전자호구를 도입하며 박진감을 끌어올린 런던대회였지만, 한국태권도의 성적은 기대이하였다. 그나마 여자 67kg급 황경선이 올림픽 2연패를 포함해 한국여자선수 최초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한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유종의 金’ 노렸지만…오, 새드민턴!

(Sad(슬픈)+Badminton(배드민턴))

이용대-유연성 남북 8강서 고배
“우리가 경기 잘 못 폈었다” 자책
정경은-신승찬 여복 결승행 좌절

올림픽 무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던 이용대(28·삼성전기)의 꿈이 무산됐다.

한국배드민턴의 간판스타인 이용대는 유연성(30·수원시청)과 호흡을 맞춰 15일(한국시간) 리우센터루 파빌리온 4에서 벌어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복식 8강전에 나섰지만, 말레이시아의 고위시엠-탄위키웅에게 세트스코어 1-2(21-17 18-21 19-21)로 역전패했다. 여자복식의 정경은(26·KGC인삼공사)-신승찬(22·삼성전기)조는 16일 벌어진 준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위 일본의 마츠토모 미사키-다카하시 아야카조에 0-2(16-21 15-21)로 져 결승진출에 실패했다. 18일 동메달 결정전에 출전한다.



이용대가 자신의 3번째 올림픽에서 좌절을 맞았다. 이용대는 15일(한국시간) 유연성과 짝을 이뤄 출전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 8강전에서 말레이시아의 고위시엠-탄위키웅에게 세트스코어 1-2로 저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리우데자네이루 1 뉴시스

이용대는 이번 올림픽 금메달을 겨냥해 2013년 10월부터 유연성과 복식 콤비를 이뤄 10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등 그동안 세계 최강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2008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에서 이효정(35·김천시청)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단숨에 스타로 떠오른 이후 늘 ‘1위여야 하는 남자’가 됐고, 부담감 속에 경기에 출전해왔다. 남자복식 파트너가 3차례(정재성~고성현~유연성)나 바뀌는 와중에도 세계랭킹 1위를 지켰지만, 2012런던올림픽 동메달과 2014인천아시안게임 은메달 등 큰 무대에서선 적잖은 좌절을 맞았다.

이용대는 그간의 아쉬움을 리우올림픽 금메달로 털어내고자 이번을 ‘마지막 올림픽’으로 정하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또 고배를 들었다. 8강전 패배 직후 그는 “우리가 경기를 잘 못 풀어서였다. 아시안게임 이후 올림픽만 보고 2년 동안은 왔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성이 형이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것이다. 형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3년간 동고동락한 유연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지욱 기자 stpo@donga.com

여성 첫 靑 정부수석 출신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



장관 내정자는 2012년 박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을 맡은 이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됐고, 2014년 6월 여성 최초로 정부수석을 맡아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올 4월 20대 총선 당시 서울 서초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이해춘 현 국회의원에게 패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법조인 출신임에도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 ‘문화가 답이다’ 등의 저서를 내 문화·예술 분야에도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박상영 “여전히 얼떨떨하네요” 김현우 “오심? 제가 부족했죠”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16일(한국시간) 현재 금메달 6, 은메달 3, 동메달 5개로 썩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다. 특히 대회 초반에는 태극공사들만 남녀단체전에서 나란히 금맥을 쫓을 뿐 전반적으로는 기대치를 밑돌아 큰 우려를 샀다. 누군가의 선전이 절실했을 때, 금빛 낭보가 전해졌다. 10일 카리오카 아레나 3관에서 끝난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들려온 박상영(21·한체대)의 우승 소식은 모든 이의 갈증을 해소해준 청량음료와 같았다.

물론 금메달 못지않은 성과도 있었다. 15일 카리오카 아레나 2관에서 펼쳐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에 출전한 김현우(28·삼성생명)의 동메달이다. 로만 블라스프(러시아)와의 16강전에서 석연찮은 판정 논란 속에 패한 김현우는 팔이 빠지고 인대가 늘어나는 큰 부상을 입고도 패자부활전에서 눈물겨운 투혼을 발휘하며 값진 동메달을 보냈다.

스포츠동아는 16일 두 선수를 동시에 만났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마주한 이들은 “열과 성을 다했다. 사력을 다했다. 리우올림픽에서의 기억은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상영과 김현우의 육성을 최 대한 살려 압축해본다.

●박상영

솔직히 여전히 얼떨떨해요. 그토록 갖고 싶은 올림픽 금메달이었는데,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휴대폰에 불이 붙을 정도로 전화가 쇄도하고 문자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결승전이 끝나고 얼마만 통화했는데, 너무 많이 우서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어요. 오늘 어서야 제대로 대화를 해봤네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목표를 높이 정했죠. 금메달을 따졌다고 스스로 약속했는데, 먼저 취소했어요. 그 자체로도 지나친 욕심이라 여겼어요. 그 대신 ‘많이 즐기되 후회 없는 경기를 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올림픽은 여느 국제대회와는 차원이 다르고, 공기부터 다를 거라고. 그래도 충분히 즐겁었어요. 오히려 편하게 했어요. 정말 재미가 있던데요? 아, 솔직히 결승전은 그렇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자보니, 그리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큰 점수차로 지고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메달도 솔직히 기대이상의 결과인데, 여기서 접을까? 포기할까?’ 그러다 금세 마음을 고쳐먹었죠. ‘대체 그게 무슨 생각이야?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물론 올림픽에서 다소 빨리 목표를

Rio2016 (16일 22시 현재 : 한국시간)

국가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미국	26	23	26	75
2	영국	16	17	8	41
3	중국	15	14	17	46
4	러시아	11	12	12	35
5	이탈리아	8	9	6	23
10	대한민국	6	3	5	14

◀ 리우에서도 ‘금빛 발차기’는 계속된다! 태권도대표팀 차동민, 오혜리, 김소희, 김태훈, 이대훈(왼쪽부터)이 17일(한국시간)부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금맥 캐기에 나선다. 종주국의 자존심은 물론 ‘금메달 10개-종합 10위’라는 한국 선수단의 목표를 지키기 위한 임무가 막중하다.

스포츠조선DB



남장현의 리우 리포트 | ‘사이다 같은’ 메달리스트 2인

이랬고, 노력한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목표는 현재의 상황과 기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는데, 그 때 많은 미디어가 금메달리스트 선배들과 인터뷰를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서운했냐고요? 천만에, 당연하죠. 짧은 시간에 유명한 선수들을 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때 저도 자극을 받았어요. ‘나도 반드시 다음 올림픽 때 저 자리에 서겠다’고. 결국 이랬네요. 정말 즐거운 추억을 안고 돌아갑니다.

●김현우

다친 선수들이 참 많아요. 선수촌의 무실에 예약이 꽉 차 있었어요. 팔 부상으로 X-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요. 계속 통증이 있는 것을 보니 힘줄과 인대손상을 입은 것 같아요. 패자부활전에 출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사람인지라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죠. 첫 판부터 지고 패자부활전을 기다리는데, 계속 집중하려고 해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금세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올림픽에 나올 정도의 선수라면 실력은 다 비슷해요. 결국 정신력이죠. 주변에서 오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판정에 화가 나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블라스프의 주특기인 ‘돌기’ 공격을 알고도 피하지 못했다는 게 속상해요. 괜히 기술을 아는데 당하다니... 결국 제가 부족했어요. 파테르 방어에 중점을 두고 연습했어야 했는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는 데 치중했습니.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4년 전 런던대회와 또 다른 기분이지요. 그간 항상 ‘1등’이란 타이틀이 익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부터 파테르 규정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내년부터 2020도쿄올림픽까지요. 저로서는 많이 유리해집니다. 그렇다고 규정이 바뀌어서 올림픽에 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파테르로 다시 승부를 내고 싶기도 하고, 당장 도쿄까지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때까지 실력이 유지되면 간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은 모르잖아요. 금메달리스트로 4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동메달리스트로서 삶이 기다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멋진 레슬링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 못해 아쉽지만, 더욱 발전한 김현우를 기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스포츠1기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